

# 온난화로 항로 열린 북극해 주도권 싸움

### 러시아·중국 이어 미국 가세 각축 폭격기 정찰 남쪽까지 감시 확대 위성·무인기 투입 등 경쟁전 양상

지구 온난화로 바다얼음이 녹아 북극해에 새 항로가 나타나면서 강대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와 중국이 치고 나가지 미국이 추격하는 계현 상황이라고 3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북극해는 과거에 천연자원 채굴을 위해 다수 국가가 비교적 평화롭게 협력하는 광활한 해역이었다.

그러나 해빙이 녹아 남쪽 가장자리에서 선박 운항의 폭이 넓어지자 다른 저위도 해역에서와 같은 경쟁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수개월 동안 폭격기의 북극해 정찰을 늘렸고 북극해 남쪽까지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병력이 약화하자 핵무기를 탑재한 흑해함대 잠수함 등 전략무기의 위협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는 애기다.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비군사용 선박의 활동도 늘리고 있다. 러시아는 나아가 미국 등 서방에 맞서 자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중국을 북극해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러시아 군함과 중국 연구용 선박의 북극해 근처 출몰은 간혹 있었으나 전투태세를 함께 담금질하는 건 비상하다는 평가다.

중국은 알래스카 근처에 정찰용 부표나 풍선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미국의 경계심을 사고 있기도 하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회의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북극권을 자국 전략 이익의 핵심으로 분명히 했으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저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극해 운항에 필수인 쇄빙선을 늘리고 러시아와 중국 선박을 위성, 무인기 등으로 추적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작년 10월 새 북극해 전략을 통해 환경, 경제개발, 국제협력보다 국가안보를 강조했다.

새 전략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러

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북극에서 러시아와 정부 대 정부의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방으로서는 러시아가 북극해를 가장 넓게 접한 국가인 만큼 관계 악화에 따라 북극해 활동이 더 심각한 경계 대상이 되는 면이 있다.

북극해에서 이뤄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협력은 새로운 교역로의 등장과 이를 선점할 필요성 때문에 일부 힘을 받고 있기도 하다.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이르면 2030년부터 북극해에는 가장 더운 9월에 바다 얼음이 사실상 사라진다.

해운업계는 러시아 북쪽 해안이 수에즈 운하와 남쪽 해양을 대신해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최단 항로가 될 것으로 본다.

러시아는 기존 항로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 항로를 자국이 규제하며 중국 등지에 에너지를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알래스카 근처 베링해를 통과하게 될 이 교역로에 남중국해처럼 ‘항행의 자유’를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항행의 자유는 특정국의 주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公海)에서 평시에 어떤 선박이라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연합뉴스



‘니제르 쿠데타’ 논의하는 서아프리카 국가 연합체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의장인 블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수도 아부자에서 ECOWAS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서아프리카 국가 연합체인 ECOWAS는 쿠데타를 일으킨 니제르 군부에 1주일 안에 헌정 질서를 완전히 회복시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군대를 동원해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다. /연합뉴스

## 중국, 코로나 중단 러시아 무비자 관광 재개

우크라이나 사태 후 밀착하며 활발한 물적·인적 교류를 이어가는 러시아와 중국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무비자 단체관광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31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중국과의 무비자 단체관광 협정 이행 재개 방침에 따라 1일부터 양국 단체관광객 왕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막심 레셰트니코프 경제개발부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은 여행사 리스트를 교환했으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첫 단체 관광객이 러시아

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최근 말한 바 있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2000년 2월 무비자 단체관광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5~50명으로 구성된 양국 단체 관광객은 사전 절차를 밟은 뒤 비자 없이 상대국을 방문해 최대 1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한해 러시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5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은 140만 명이며, 이 중 120만 명이 무비자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 파키스탄 정치집회장 자살 폭탄테러 최소 44명 사망

### 200여명 부상 사망자 늘어날 듯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열린 정치 집회 도중 폭탄 테러가 벌어져 최소 44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다쳤다고 AP·AFP·dpa 통신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인 파키스탄 북서부 카르카이바·파크쿤트와주(州) 바자우르에서 이슬람 강경파 정치지도자들이 모인 정치 집회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했다.

페로즈 자말 파키스탄 지방 정보부 장관은 AP 통신에 “폭발로 지금까지 44명이 ‘순교’했고 거의 200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 가까운 성직자로 자미야트 울레마-에-이슬라미(JUIF) 정당 지도자인 마울라나 파즐루르 레만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탄 테러가 발생했을 때 레만이 집회에 있지는 않았지만, 고위급 인사들이 속속 모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탄이 터졌을 때 JUIF 당 고위 인사인 알몰 라시드가 도착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경찰은 “부상자 일부는 중태로, 도심 주요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탄이 장착된 조끼를 입은 자살 테러범이 공격을 자행했으며, 초기 조사 결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적대 관계인 ‘이슬람 국가’(IS)가 공격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조사를 계속 진



지난 30일(현지시간)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한 파키스탄 북서부 카르카이바·파크쿤트와주(州) 바자우르에 구급차가 도착해 있다. 이슬람 강경파 정치지도자들이 모인 정치 집회에서 일어난 이번 공격으로 최소 44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테러범이 JUIF 고위 지도자들이 앉아 있던 무대 근처에서 폭탄을 터뜨렸다고 설명했다. 집회 참석자인 모하마드 왈리는 연설자가 군중에 연설하는 도중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테러가 발생한 바자우르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와 동맹인 무장세력 파키스탄 탈레반(TTP)의 거점이다.

이날 테러는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최근 발생한 최악의 공격 중 하나로 기록된다.

한편,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2014년 북서부 페사와르의 군 부설 학교에서 TTP의 총기 난사로 학생과 교사 등 147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 1월에는 페사와르의 경찰 단지 내 모스크(이슬람 사원)에서 자폭 테러가 발생해 100명 이상이 숨졌다. /연합뉴스

## 日국민 절반 “기시다, 광복절때 사과 해야”

### 전쟁 가능성 50 대 49% 팽팽

일본인의 절반 가량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광복절인 오는 8월 15일 패전일에 일제의 가해와 반성을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지난 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공약재단법인 일본여론조사회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일본 유권자를 대상으로 ‘평화’에 관한 인식을 묻은 우편 여론조사에서 유효 응답자 1758명의 49%는 기시다 총리가 올해 패전일 추도식에서 가해와 반성을 언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해와 반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는 46%였다.

일본여론조사회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패전일 추도식에서 일제의 가해 사실을 밝히고 사죄한 바 있으나, 2013년 이후 추도식에서는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기시다 총리가 가해와 반성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언급 필요성 여부를 질문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발표한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인 자격으로 일제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으나 ‘반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이 전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50%가 ‘없다’고 했고, 49%는 ‘있다’고 답해 팽팽했다.

다만 일본이 전쟁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3년 전에는 32%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핵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74%로, ‘없다’를 택한 25%보다 훨씬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80%는 핵무기의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견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9%였다. /연합뉴스

### 한국토지부동산(주)

### 전원주택 신축

###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